

무시 못할 이라크, '해결사' 손흥민이 나선다



이라크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전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14일(현지시간) 알 사일리아 스포츠클럽에서 현지 적응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밤 카타르 도하서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6차전 벤투호, 시원한 골폭풍으로 본선행 조기 결정지을지 주목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이 3만여 홈 팬들 앞에서 아쉽게 득점하지 못한 아쉬움을 카타르 도하에서 풀 수 있을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7일 오전 0시 도하의 타니 빈 자심 경기장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6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현재 3승 2무(승점 11)로 이란(4승1무·승점 13)에 이어 조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종예선 각 조 2위 팀까지 총 4팀에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지고, 각 조 3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3위(승점 5·1승 2무 2패) 레바논에 승점 6 차로 앞서있다. 이번 이라크전에서 승리하면 카타르행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라크는 4무 1패(승점 4)의 부진 속에 4위로 처져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이라크(72위)

는 35위인 한국보다 37계단이나 낮다.

하지만 한때 '중동의 맹주'였던 이라크는 무시할 수 없는 상대다.

특히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을 지휘해 한국 축구에 대해 매우 잘 아는 디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라크 사령탑이어서 더 그렇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한국 원정으로 치른 최종예선 1차전에서 0-0 무승부를 끌어내 벤투호를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

공격진에 불 투입하기조차 어렵게 만든 이라크의 '질식 수비'에 태극전사들은 제대로 당했다.

승리를 위해선 골이 필요하다. 이라크와 1차전에서 무득점에 그친 손흥민(토트넘)이 시원한 골을 터뜨려 벤투호 앞에 '본선행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흥민이 이라크전에서 득점하면 아랍에미리트(UAE)와 최종예선 5차전에서 골을 넣지 못한 아쉬움도 털어낼 수 있다.

손흥민은 UAE전에서 슈팅 7개를 날렸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다. 골대만 2번을 맞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오랜만에 경기장을 찾은 3만여 관중 앞에서 득점하지 못해 아쉬움을 삼켰다.

이와 함께 자신의 첫 A매치 3경기 연속골 기록도 무산됐다.

이번 이라크전은 벤투호의 올해 마지막 A매치다.

손흥민이 이라크 골대를 가르고 벤투호에 승리를 선사하면 월드컵이 열리는 2022년을 더 기분 좋게 맞을 수 있다.

벤투호가 중용해온 '중원의 엔진' 황인범(카잔)의 침투 패스 능력에 몰이 올라 손흥민을 향한 불배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라크는 자국 사정으로 월드컵 예선 홈 경기를 도하에서 치르고 있다.

도하의 무더위가 벤투호의 또 다른 '난적'이 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현재 도하 기온은 20도대에 머물고 있어 태극전사들의 컨디션 관리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져 현지 교민들의 응원은 받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

KIA 윤중현, 새 무기 슬라이더 준비

꿈같은 시즌을 보낸 KIA 윤중현이 최원준의 슬라이더로 두산 벽을 넘는 꿈을 꾀다.

사이드암 윤중현은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깜짝 스타'였다. 대졸 4년 차에 처음 1군 무대를 밟았고, 탈락 선발 자리도 맡았다. 그리고 프로 첫승에 이어 5승까지 기록했다.

윤중현은 "꿈 같은 한해였다.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고 2021시즌을 평가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작했던 올 시즌이었다.

윤중현은 "올 시즌 1군에 못 가면 그만두고 생각했다. 나이도 27살이고, 1년 안에 못 올라가면 어린 투수들도 많아서 도태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면 밥그릇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간절하게 1년 안에 승부를 본다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간절하게 준비한 윤중현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다. 군 복귀 후 첫 실전이었다던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스스로 놀랄 정도로 좋은 피칭을 선보였고, 초반 부진을 딛고 공격적인 피칭으로 어필하면서 선발자리까지 진입했다.

윤중현은 "처음 1군 올라간다고 했을 때 서재용 코치님께서 변호만 등록된 선수라는 생각으로, 1군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오라고 하셨다.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며 "막상 올라오니 잘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다. 불안해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내 공 던지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감독, 코치님이 좋게 봐 주셨다"고 말했다.

또 "생각했던 목표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를 수 있었던 한 해였다. 3승하고 싶었는데 1주일 사이에 3승을 해버렸다. 그래서 다시 5승을 목표 세웠는데 이했다.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서 윤중현은 이번 겨울 운동에 더 집중할 생각이다. 그리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슬라이더'를 화두로 삼았다.

공격적인 피칭과 정교함으로 좋은 성적은 냈지만, 윤중현은 높은 벽도 느꼈다. 특히 두산을 상대로 좋은 경험을 했다.



윤중현

그는 올 시즌 두산전 5경기에 나와 7.65의 평균 자책점으로 4패만 기록했다.

윤중현은 "강팀이라는 걸 느꼈다. 개인 능력들이 뛰어나서 크게 차이나는 헛스윙이 없었다. 내 구위가 약하기도 했지만 실투를 놓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벽을 느끼고 더 빠른 변화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맞춰 잡으려고만 해서 안 되는 팀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두산전 패배를 성정의 발판으로 삼은 그는 두산 최원준의 슬라이더를 연구하고 있다.

윤중현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스피드가 2-3km 정도 올라 가야 될 것 같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노력하겠다. 느린 변화구밖에 없어서 슬라이더 같이 빠른 변화구도 만들어야 한다. 그레아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원준이 형 슬라이더 던지는 것 보면서 연습하고 있다. 친하지 못해서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영상을 자주 보고 있다. 스타

일이 비슷해서 보고 연습하고 있다. (임)기영이 형도 올해 슬라이더 던지면서 더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슬라이더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신인왕 후보로도 언급되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윤중현은 내년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윤중현은 "신인왕 후보로 언급을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시즌이 됐다. 내년에는 더 잘하기보다는 어느 위치든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크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다. 내년에도 잘해야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크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절제해야만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끝까지 힘 안 떨어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이희균 수원FC전 발리슛 '10월의 골' 선정

광주FC 이희균(사진)이 '10월의 골' 주인공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5일 10월 'G MOMENT AWARD(게토레이 승리의 순간)' 수상자를 발표했다.

지난해 신설된 'G MOMENT AWARD'는 매월 승리팀의 득점 중 가장 역동적인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된다. 2명의 후보를 선정해 뒤 K리그 공식 인스타그램 팬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희균은 포항 이호재와 경쟁을 펼쳤다.

이희균은 10월 24일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선 45분 호쾌한 발리 슈팅을 날리며 득점을 기록했다.

광주는 이날 엄지성, 이희균, 엄원상 등 '금호고 3인방'의 골 퍼레이드로 3-1 승리를 거뒀다.



총 5348표(50.8%)를 받으면서 5185표(49.2%)의 이호재를 근소하게 따돌렸다.

수상자로 선정된 이희균에게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된다. 시상식은 인천과의 시즌 최종전이 열리는 12월 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포수 이흥구, 친정팀 KIA 타이거즈 복귀 타진

이흥구가 '기대 반 격정 반' 친정팀을 찾았다.

KIA 타이거즈의 1군 마무리캠프가 진행된 15일, 챔피언스필드의 빨간 유니폼 사이에 하얀 유니폼이 눈에 띄었다.

낯선 유니폼이지만 낯익은 얼굴, 포수 이흥구(31)였다.

올 시즌 KT위즈에서 뛰었던 이흥구는 37경기에 출전해 0.164의 타율에 그치면서, 시즌이 끝난 뒤 방출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성적은 부족했지만 아직 젊은 나이, 경험이 중요한 포수 포지션인 만큼 이흥구는 야구를 놓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이날 친정팀 캠프에 합류, 3일간 테스트를 받게 됐다.

이흥구는 2013년 단군대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그리고 2017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SK(현 SSG)로 이적했다.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들 앞에서 어필 무대를 갖게 되면서 마음은 편하다. 다시 친정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한편으로는 잘 아는 팀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이흥구는 "야구를 그만두기에 미련이 있었다.

야구를 놓고 싶지 않았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서 준비하고 있었다. 한 번 더 야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잘 아는 곳에서 테스트를 받게 돼서 마음은 편하다"면서도 "프로는 어차피 팀에 필요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만큼 나를 잘 알고 있어서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도 된다"고 언급했다.

또 "올 시즌 성적은 부족했지만 자신 있다. 아직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팀에 역할을 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야구를 시작했던 팀에서 야구를 계속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평가해주시 모르겠지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